우리나라, 세계 선박금융 조달시장의 총아로 부상

프랑스계은행, 한국 선진금융기법 활용 계약체결

최근 해운시황의 호전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운시장에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계은행이 한국의 관련 제도를 이용하여 선박금융을 체결,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계약은 조선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음은 로이드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Shipping Economist' 8월호 기사내용과 선박금융지원과 관련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프랑스계은행인 Natixis와 중동계 선주와의 최근 계약은 조선(造船)국가에서의 선진금융기법을 활용한 주요사례라 할 수 있다.

▶ Natixis, 한국 관련세제 활용 선박건조

최근 프랑스계은행 Natixis는 홍콩지사를 통해 한국선박투자회사제도(Korean Ship Investment Company Scheme, KSIC)를 이용, 선박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Natixis에 의하면 해운투자전문은행이 한국의 세제를 이용하여 국제선박금융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일이라고 전했다.

동 계약은 'Gulmar Offshore' 의 해저탐사지원선 2척에 대한 자금조달로 그 규모가 2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금번 계약체결은 Natixis에게는 급진격인 변화를 의미한다.

Natixis는 3년전 해운기업들이 전통적인 자산담보대출에서 탈피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 메자닌 펀드(mezzanine funds) 및 지분참여(equity funds)와 같은 투자프로젝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더구나 최근 보유자산 증가를 보고한 선박소유자들은 몇몇의 대안에 대한 요구를 했으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대안들을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계는 아시아 전체, 주로 한국, 중국 및 일본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선박의 신조계약 및 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 Natixis, 지난해부터 아시아시장 공략

Natixis는 선박회사의 의사결정과정 변화와 아시아로의 쏠림현상을 고려하여 지난 2006년 홍콩과 싱가포르에 해운관련 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또한 금년 9월 두바이와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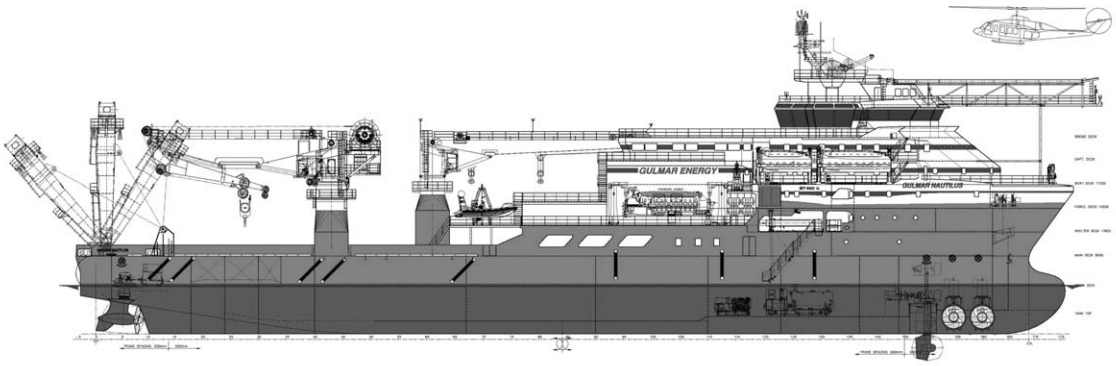
이러한 전략은 선사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친밀히 다가가는 것이고, 또한 자국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공공기관에 더욱 친밀히 다가가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Natixis는 전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금융서비스 관련 상담 등 현지전문가 구성된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Natixis의 북아시아 해운관련 사무소(홍콩 소재)인 Laurent Girault 소장은 "Natixis는 항상 틈새시장 및 해저자원개발과 같은 엄선된 산업 등 다른 각도에서 해운금융에 관여해 왔다"고 말했다.

▶ 다양한 선박금융기법 개발에 주력

그는 또 "우리는 현지 마케팅 및 자문활동을 수행



할 목적으로 그리스,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에 지난 2년간 해운금융관련 사무소를 운영해 왔으며, 금년 9월 두바이와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는 가능한 한 리스, 수출금융, 캐피탈시장 및 사모펀드를 결합할 목적으로 현지의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경험을 쌓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바이에 개설된 사무소는 중동과 인도를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Girault 소장은 "Natixis의 전략적 접근은 역량, 현지 사무소, 파이낸싱 솔루션 및 인적자원개발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 효과에 의해 기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Natixis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중국의 Sinosure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정부 산하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홍콩에 해운관련 부서를 설립했다. 현지 부서는 Natixis로 하여금 주요 선박건조국가 내 선주에게 언제라도 파이낸싱 솔루션의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Natixis는 전세계적으로 개설된 해운관련 부서를 통해 선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Natixis 관계자는 "이런한 접근법의 큰 장점은 Natixis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고, 그래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Natixis는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비즈니스에 착수할 수 있고 현재와 미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해운관련 금융대안을 고객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의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용

최근 몇 년 동안, 몇몇 아시아 지역 정부의 공공기관에서는 선박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Girault 소장은 "Natixis는 상기 기관에서 제공한 해운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따라서 이들 기관과의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tixis는 두바이를 본사로 한 해저자원개발업체 Gulmar Energy사와 함께 한국에서 체결된 계약은 Natixis의 역량과 네트워킹 기술이 빚어낸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Natixis는 2척의 잠수작업지원선(한진중공업 발주)에 대한 자금조달 준비를 위한 2억4,000만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자금은 한국선박투자회사제도의 모기지론 형태로 조달했다.

Natixis 홍콩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였는데, 대우증권이 담보한 한국의 개인 투자자에 의해 자금을 조달했다.

▶ 해저탐사지원선 2척 파이낸싱 성사

Natixis는 지난 6월말 아랍에미리트의 Gulmar Energy사의 해저탐사지원선 2척에 대해 전체 건조비용에 대한 파이낸싱 패키지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Gulmar사는 페르시아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로컬기업이었다. Gulmar사는 중고 잠수작업지원선으로 선대를 구성했다. Natixis는 그러한 중고선박 구입자금을 제공하여 왔다.

Natixis 두바이 사무소 David Bonicel 소장은 "잠수작업지원선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ulmar사의 잠재력이 대단하고 특히 해저자원탐사산업의 강력한 펀더멘탈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Gulmar사는 한진중공업에서 최신 잠수작업지원선 2척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발주가는 2억2,000달러이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09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다. 동 발주계약을 계기로 Gulmar사는 Subsea7과 Acergy사처럼 해저자원개발산업에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선박투자회사제도 선박 외에 최초로 활용

흥미로운 점은 선박투자회사제도가 해저자원개발 자금조달에 최초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본 프로젝트의 20%가 한국 사모펀드에 의해 모집되었고, Gulmar사는 선가의 5%만 지분투자했다.

Natixis는 전 세계적으로 60척 미만인 잠수작업지원선과 Gulmar사의 회사 규모를 검토했을 때, 한국수출입공사의 지원과 한국 사모펀드의 관여가 없었다면 계획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atixis는 해저자원 개발산업에 대한 강한 펀더멘털과 Gulmar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확신하였다. Gulmar사의 기업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관건이었다.

Natixis에 의하면 프랑스, 두바이, 홍콩 및 한국의 헌신과 협력이 단 3개월 만에 복잡한 금융조달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지원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조환익)는 지난 6월20일 한진중공업이 아랍에미리트 수입자 Gulmar Energy SA로부터 수주한 잠수지원선의 수출거래 성사를 위하여 2억5,000만달러 상당을 중장기수출보험 구매자 신용방식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잠수지원선은 심해지역 석유채굴 등의 잠수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수작업선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 지원 결정에 따라 Gulmar Energy SA는 프랑스계 NATIXIS 은행으로부터 각 1억3,000만달러 상당의 선박 2척 구매에 따른 금융제공을 확약받게 되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 조선업체의 잠수지원선 건조는 이번이 최초로, 동 수출 성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은 취약했던 고부가가치 Offshore 선박 건조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형 잠수지원선 발주는 지난 2005년 이후 해상유전개발 프로젝트 증가, 멕시코만 태풍피해 등에 따른 Offshore 시장의 호황으로 매년 증가하여, 향후 10년간 45억달러 규모의 시장 조성이 전망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까다로운 기술공정으로 유럽 조선소가 수주를 독점해 왔다.

▶ 한진중공업 국내 최초로 DSV 수주

한진중공업은 아랍에미레이트의 Gulmar Energy사로부터 잠수작업지원선(Diving

Support Vessel : DSV) 2척을 약 2억2,000만달러에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월2일 공시 및 발표했다.

동사가 수주한 잠수작업 지원선은 척당 단가가 1천억원이 넘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국내 조선사가 해외 선주사로부터 DSV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사가 수주 건조할 DSV는 6,200톤에 길이 115.4m, 폭 22m, 깊이 9m의 Offshore 유정 해저작업을 위한 다목적 특수작업 지원선으로 120명의 인원이 동시에 탑승, 수심 600m까지 해저 작업 및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심해 다이버들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잠수부용 감압실과 140톤규모의 해상크레인 및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헬리콥터 갑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잠수 작업자를 위한 쾌적한 거주시설까지 구비된 최신형, 최대형 DSV다.

Gulmar Energy사는 이 DSV를 Oil, Gas 등 심해유전 해저배관공사 작업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금년초 국내에서 최초로 보유하게 될 해양수산부의 극지탐사용 쇄빙선을 수주한 것과 더불어 이번에 해외선주사로부터 첨단 고기술 선박인 DSV까지 수주한 것은 회사의 고기술 선박 건조능력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거"라며, "이번 쾌거를 바탕으로 국내 조선산업을 선도해온 고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선박투자회사제도 유럽의 대안으로 부상

Natixis의 홍콩사무소 Girault 소장은 아시아의 주요 트렌드가 어떻게 선박금융산업을 변모시키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전했다. Export Credit Agencies와 Exim Banks는 해운관련 금융거래에 좀 더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대형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상업적 국가적 리스크를 감수하는 공공투자기관의 능력은 해운관련 자금을 조달하는 이에게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선박펀드처럼 아시아발 신(新)펀드 가입은 선주에게는 선대 확충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그러한 아시아의 금융지원제도는 이미 성숙한 유럽의 비슷한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시아 역내 공공기관은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상업적이며 복잡하고 전문화된 시장상황에 따라 해운산업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Natixis의 최근 계약은 아시아의 금융조달구조에 대한 최신 동향이다. 대규모 자금의 조달과 혁신적인 계약이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의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이미 성장한 유럽의 선박금융제도의 좋은 대안으로서 세계 선박금융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